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울뜨레아	5월 19일(일) 11:40	강당
사목회의	5월 23일(목) 19:40	강당
성체분배자회	5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조배실

● 견진성사 교육 및 전신자 신앙 재교육 안내

일시	제목	강사
5/24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백승준 주임신부님

- 견진성사 예식 총연습 : 6월 7일(금) 20:00
- 견진성사 : 6월 8일(토) 오전11시, 대성전

● 성모의 밤 행사 (5월 30일, 목)

- 성모의 밤 행사 : 5/30(목) 저녁 7시 30분
- ※ 올해 성모의 밤 행사는 성모 행렬 없이 대성전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 5월 가정의 달 행사

-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일미사에 三代가 함께 참석하는 가정에 선물을 선사합니다.
- 조건 : 구로3동성당 교적자(가족 중 1인 이상)
- 선물 : 외식상품권, 신부님과 가족사진 촬영 등

● 알림

- 5월 26일(일) 청소년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4월 전입)

- 일시 : 5월 26일(일), 교중 미사 후
- 장소 : 1교실
- ※ 각 구역·반장님은 연락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06구역6반	이상노	프란치스코	서울대교구/독산동
11구역3반	성정숙	헤레나	서울대교구/서초동
15구역4반	조영숙	비비안나	서울대교구/가락2동
15구역4반	조영희	아네스	"
22구역3반	김유주	소화데레사	대전교구/천안쌍용동

● 우리 가정 성모상 꾸미기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봉헌하는 의미로 성모상을 꾸민 사진이나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가족사진을 보내주시면 영상을 만들어 봉헌하겠습니다.

- 제출처 : 각 반장/구역장, 총무(010-8161-8307)
- 제출마감일 : 5월 26일(일)

● 12시미사 성가팀원 모집(Team Joseph)

12시미사에 함께 찬미 찬양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 주일연습 : 10:30~11:50
- 문의 : 권용란 세레나(010-9396-1397)
- 파트별(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총원시까지

● 다음 주일(5/26)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4구역	청소	9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5월 08일 ~ 14일)

교무금	7,268,000원
주일헌금	5,421,500원
홍보 주일 2차헌금	1,795,000원

감미자100만원 서만심 6만원 박재호 5만원
김명순 5만원 임정자 5만원 이영순10만원
홍종만10만원 최무순 5만원 신종구 5만원
황정후 5만원 8구역국수잔치5만원

- 물품기부 객재웅 베드로 쌀 20Kg 4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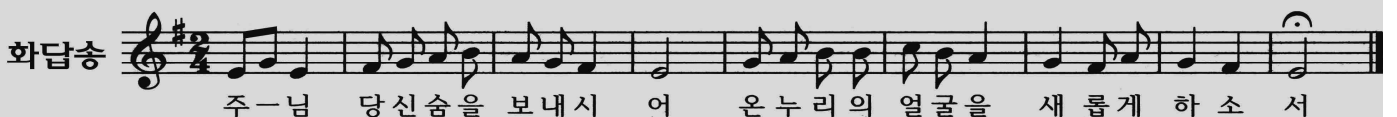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5/19	이인옥	신재순	신종구 김덕영 김성해
5/26	권태희	오성환	도현만 장익근 정연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5/19	이화봉	장인홍	최석준 최승일 최영만 최창렬	
5/26	박승환	김광수	김영배 김인기 이계명 하재민	

성가번호 ♪ 입당 : 143 ♪ 예물준비 : 142, 495 ♪ 영성체 : 496, 502 ♪ 파견 : 144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VI. 재화의 공통적 목적

93.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두, 지구가 본질적으로 공동 유산이므로 그 열매는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이는 창조주에 대한 충실의 문제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이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태적 접근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관점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재화의 보편 목적에 종속된다는 원칙, 그리고 이에 따른 공동 사용 권리는 사회 활동의 '황금률'이고 “윤리적 사회적 질서 전체의 제1원리”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이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모든 형태의 사유 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가르침을 강조하시며 “하느님께서 온 인류에게 땅을 주시어 아무도 제외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모든 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교황께서는 “인간적 사회적 권리, 경제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국가들과 민족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신장시키지 않는 개발 유형은 진정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못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유 재산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모든 사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언제나 가르칩니다. 재화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보편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소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계획에 맞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일부 불의한 이들의 습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94. 부유한 이와 가난한 이는 동등한 존엄을 지닙니다. “이들은 모두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작거나 크거나 다 그분께서 만드셨고”,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이는 파라과이 주교들의 말처럼 실질적인 결론을 낳습니다. “모든 농민에게는 땅을 적당히 분배받아, 그 땅 위에 자신의 가정을 꾸미고, 가족을 부양하며 생존을 보장받아야 하는 자연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권리는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행사하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땅문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기술 훈련, 대출, 보험 가입, 시장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